

새한, 코듀로이 신제품 덕 톡톡!

2004년 매출 300억원 예상 ... 마찰견뢰도 등 품질 개선효과 뚜렷

새한의 장섬유 코듀로이 직물 <ECOMO>가 유럽,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강세를 보여 2004년 <ECOMO>의 매출이 전년대비 300% 증가한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

<ECOMO>는 2003년 2월 세계 최초로 장섬유 극세사와 초극세사를 사용해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코듀로이와 다른 새로운 질감의 코듀로이다.

기존의 코듀로이는 대부분 면을 이용한 제품으로 촉감이 거칠어 주로 캐주얼 용도에 그친 반면, <ECOMO>는 탄력성 및 Drape성, 소프트 터치가 가미돼 기존의 코듀로이 제품으로는 응용될 수 없었던 남녀 정장과 자켓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.

특히, <ECOMO>는 기존의 면 코듀로이 직물에 비해 세탁수축률과 마찰견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면 코듀로이가 1-2등급 정도인 반면, <ECOMO>는 3-4등급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새한의 주장이다.

또 패션성과 실용성을 겸비해 의류 뿐만 아니라 쿠션, 소파용 덮개, 침장구류 등 비의류용 인테리어 직물에도 매우 적합한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.

특히, 기존의 면 소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산 제품에 밀리고 있지만 <ECOMO>는 원유 수입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 또한 월등해 침체된 국내 화학섬유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.

섬유의 용도별 기준

(단위: 급, %)

구 분		유아용품 (36개월 미만)	유아용품 외 피부지속접촉제품	신사복/ 숙녀복
염색견뢰도	세탁	4 이상	4 이상	4 이상
	마찰	건	4 이상	4 이상
		습	3 이상	3 이상
	땀	산	4 이상	4 이상
		알칼리	4 이상	4 이상
	물	4 이상	4 이상	4 이상
세탁수축률	직물	±3	±3	±3
	편물	±6	±6	±6

<ECOMO>는 여러 가지 장점이 부각되면서 미국, 일본 유럽 등 까다로운 선진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심주영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7/01>